논문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적 상상과 재현의 정치*

암남공원 해녀공동체를 중심으로

차윤정
greencha@pusan.ac.kr | 부산대학교

국문 초록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을 상상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를 관통한다고 믿고 있는 작동원리, 가치체계 등과는 '다른 것'을 그려보는 것이다. '다른 것'은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아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대안으로 상상되지 못했던 것들이 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신자유주의를 위반하는 논리가 작동하지만 은폐되어 있는 로컬공동체를 재현함으로써, 이를 통해 대안적 상상을 시도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해 먼저 재현, 재현목록과 담론의 관계를 살피고, 재현이 가진 의미와 지식의 생산기능이 어떻게 담론이나 권력과 연계되는지를 논의함으로써 신자유주의의 대안적 상상에서 재현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신문 기사에 재현된 우리 사회의 '경쟁담론'의 분석을 통해, 물화된 '너'와 '우리', '공생' 개념의 삭제, 몰인격적 관계에 기반한 경제적 효용성의 추구라는 신자유주의적 논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지배적 담론에 가려 재현되지는 못하고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L0001)

있지만,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다른 것'의 모습을 암남동 해녀공동체에서 찾아보았다. 해녀공동체 내부의 경쟁에서는 '나'와 관계 맺는 '너', 신자유주의적 경쟁에서 삭제되었던 '우리', '공생'의 개념이 복권되고 인간적 관계에 기반한 '다른 경쟁'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끝으로 존재하지만 재현되지 못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소통되지 못했던, '다른 것'의 재현은 지배적 담론에 균열을 가하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실천의 한 가지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편재되어 있지만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수많은 대안적 풍경들을 재현하여 새로운 인식틀이 될 수 있는 재현목록을 구성해 가는 것은, 개인의 변화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층위의 장소들로 확장될 수 있는 대안적 상상의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주제어 : 신자유주의, 재현, 담론, 경쟁, 해녀공동체

1. 서론

1970년대 케인즈주의의 위기와 함께 등장한 후, 현실세계의 작동원리로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파급된 신자유주의는 글로벌 질서에 후발 주자로 편입된 한국사회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고도성장과 경제적 부의 팽창이라는 외연적 확장과 함께 적절한 대비 없이 추진된 자본시장의 개방, 공기업의 민영화 및 규제완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한국인들은 신자유주의적 주체로의 초고속 이행을 경험하고 있다. 서구에 비해 가족이나 국가 등 공동체적 연대가 비교적 강했던 한국 사회는, 급속한 신자유주의적 주체화로 인한 유대 관계의 해체와 초개인주의화에 따른 부작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초개인주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내세워 끝없는 경쟁을 유발시키는 신자유주의는, 공생이나 서로 연대하는 저항적 주체를 상상하기도 어렵게

만든다. 경쟁이 가열되고 사회적 성공과 실패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연대의 가능성은 소멸되고 치열한 생존주의적인 전략만이 모색되기 때문이다. 타인과의 공생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의 개념이 삭제된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내면화하면 할수록 성공에 대한 강박과 함께 원자화된 고립감 속에서 개인들의 삶은 더욱 불안해진다. 이러한 지점에 신자유주의 너머에 대한 대안적 상상이 자리하게 된다.

신자유주의에 대해 대안적 상상을 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가치체계나 욕망, 행동 방식 등과는 '다른 것'을 그려보는 것이다.[1] '다른 것'에 대한 상상의 방식은 다양하다. 어떤 '다른 것'을 상상하는가, 어떻게 그것에 도달하는가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 '다른 것'은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아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대안으로 상상되지 못했던 것들이 될 수도 있다. 신자유주의가 지배적인 사회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가치들을 내면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현실에 대한 진단과 해석, 대안적 상상력과 영감을 제시하면서 대안 운동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한국사회의 지배적 담론으로 자리잡은 신자유주의 담론에 의해 은폐되어 있는, '다른 것'으로서의 의미를 가진 로컬 공동체를 드러냄으로써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적 상상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담론과 재현의 관계를 살피고 신자유주의의 대안적 상상에서 재현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신문 기사에 재현된 우리 사회의 '경쟁담론'을 통해 이에 내재된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신자유주의라는 지배적 담론에 가려 재현되지는 못하고 있

1) 김현미 · 권수현은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상상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를 관통한다고 믿고 있는 작동원리, 가치체계 등과는 '다른 것'을 그려보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김현미 · 권수현, 「포스트신자유주의를 상상하며」, 『친밀한 적』 (이후, 2010), 232.

지만,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다른 것'의 모습을 로컬 공동체인 암남동 해녀공동체에서 찾아보고[2] 공동체 내부의 경쟁에서 작동하는 '다른 경쟁'의 논리를 확인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 너머를 상상하는 데 있어 재현의 정치가 갖는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신자유주의 담론의 '밖'과 재현

2.1. 재현, 재현목록과 담론

문장이나 텍스트들의 엮음으로 생산되는 담론은 언어가 가진 행위성, 실천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실천과 연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담론의 생산과 실천이 담론의 외부, 즉 사회 구조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3] 담론을 외부의 사회 구조와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하려는 관점에서 보면, 담론은 다양한 갈등과 투쟁이 벌어지는 사회의 구조를 배경으로 생산되고 그런 사회의 갈등과 투쟁을 반영한다. 알튀세에 따르면 어떤 사회의 지배 구조가 형성되면 다양한 장치들 속에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마련되는데, 이러한 장치들은 지배구조를 반영하는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기제가 된다.[4] 특히 교육이나 매스미디어 같은 장치들은 이데올로기, 담론을 생산하는 중요 기제로서, 사회의 지배 구조를 반영하는 지배적 담론을 생산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친다. 한 사회의 지배적 담론이 생산되면 이를 정당화하는 파생담론들이 만들어지거나 담론들끼리 결합하여 지배적 담

2) 이때 '다른 것'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삶의 전면이 신자유주의나 탈자본주의적 성격을 가진 이상적인 집단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부분적으로 대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을 여기에서는 '다른 것'에 포함시킨다.

3) 대표적으로 알튀세, 페쇠, 푸코 등이 이러한 입장에 속한다. 다이안 맥도넬, 임상훈 옮김, 『담론이란 무엇인가』 (한울, 1992), 37~39.

4) 다이안 맥도넬, 임상훈 옮김, 『담론이란 무엇인가』 (한울, 1992), 45~46.

론의 자리를 공고히 하거나, 지배적 담론에 저항하는 담론을 배제 또는 은폐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러한 작동 방식을 통해 한 사회의 지배적 담론은 그 사회의 가치체계나 인식의 틀로 자리잡게 되며, 이는 다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런데 이러한 담론을 형성하고 유지시키는 대표적인 방식이 재현이다. 재현은 단순히 어떤 대상을 그려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재현은 특정 대상에 관하여 언어와 이미지를 통해 그것을 다시 존재하게 함(re-presentation)으로써, 의미와 지식을 생산하는 기능을 가진다. 재현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다.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의미와 지식이 생산되고 교환되는 과정이 바로 재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5] 재현이 담론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도 의미 생산과 지식 생산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현을 통해 특정 대상에 대한 의미가 생산되고 유통되어, 이것이 일반화 되면 하나의 담론으로 자리잡게 되고 지식이 된다. 물론 이때 생산되는 대상에 대한 의미나 지식은 담론의 외부구조인 사회의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담론 혹은 작동원리나 가치체계가 한 사회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유하게 되면, 다양한 재현체계들은 이를 구현하는 재현들을 만들어 냄으로써, 관련 재현들로 이루어진 재현목록을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특정 담론이 사회의 지배적 담론으로서의 위치를 강화해 나가면 나갈수록 관련된 재현의 생산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재현목록의 외연도 확장된다.

재현목록은 기본적으로 재현들의 집합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재현이 가진 의미와 지식 생산의 기능을 통해 재현목록은 단순한 집합적 의미를 넘어, 재현을 통해 만들어진 지식을 강화하고 그것을 진리로 보이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 낸다. 이는 재현이 그것이 생산되는 사회 구조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역으로 그것이 생산해 내는 의미와 지식이 사회 구성원

5) 김상률, 「탈식민 시대의 재현의 정치－미국문화와 인종적 타자」, 『탈근대의 담론과 권력비판』 (한양대 출판부, 2002), 72～73.

의 삶의 방식과 태도에 영향을 끼치는 인식틀을 구성하는 데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특정 담론을 반영하는 재현목록의 외연이 확장된다는 것은, 그러한 담론이 인간들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식틀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강화시킨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국 지배적인 담론을 재현한 재현목록의 외연적 확장에 비례해서 지배적 담론에서 벗어나는 '다른 것'에 대한 재현은 자리할 수 없게 되며 그에 대한 상상도 차단된다. 이렇게 재현은 대상에 대한 의미와 지식 생산을 통해 사회 속에서 유통되고 결국 담론적 권력과 연결된다.

이런 의미에서 지배적 담론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상상과 그에 대한 재현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른 것'에 대한 재현은 지배적 담론이 만들어내는 의미와 지식과는 다른 의미와 지식을 생산해 내기 때문이다. 지배적 담론을 재현하지 않는 다른 재현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지배적 담론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 이런 재현들의 집합인 다른 재현목록을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인식틀이나 그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다른 것'을 상상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것'의 재현을 통해 지배적 담론에 균열을 일으키는 것은 종국에는 한 사회의 지배적 담론이라는 것이 필연적 진리가 아니라 우연성에 기반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대안으로서의 '다른 것'에 대한 상상의 기반과 지배적 담론에 대한 저항담론의 기반을 제공한다.[6] 이런 점에서 '다른 것'에 대한 재현은 일종의 재현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지배적 담론에 의해 재현되지 못하고 은폐되었지만, 지배적 담론의 모순을 드러낼 수 있는 '다른 것'의 재현을 통해 지배적 담론과 경합할 수 있는 저항담론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

6) 이러한 방식은 자본주의의 우연성을 증명하고자 했던 깁슨-그래엄의 방식을 원용한 것이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담론 밖에서 부정적으로 의미화된 것들을 목록화하고 제시하여 새로운 경제적 풍경의 지도를 그려냄으로써 자본주의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JK 깁슨-그레엄, 엄은희・이현재 외 옮김, 『그따위 자본주의는 벌써 끝났다』(알트, 2013), 231.

2.2. 재현의 정치와 대안적 상상

우리 사회의 지배적 담론인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상상하는 한 가지 방법은, 현재 우리 사회를 관통한다고 믿고 있는 작동원리, 가치체계 등과는 '다른 것'을 그려보는 것이다. 그것은 지금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경제적 효용성 중심의 가치나 극단적인 경쟁 논리 같은 것과는 어떤 점에서 다른지, 특히 그것이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삶의 풍경과 어떤 다른 삶의 풍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등의 문제와도 관련 된다. 기존의 경제적 효용성을 중심에 둔 가치가 아닌 인간의 행복한 삶이 가장 우선될 수 있는 가치인지, 그래서 그것이 경쟁, 고독, 소외, 자기소진, 불안 같은 단어들로 묘사되는 삶과는 다른 삶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 사회의 작동원리, 가치체계가 구현된 삶의 풍경은 재현의 문제와 연결된다. 언론 등의 매체를 통해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삶의 풍경을 재현하는 재현목록들은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라 재현된 것들의 집합체이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경쟁의 연속으로 재현되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칠 줄 모르는 자기계발이 요구되며, 여기서 도태되는 사람들은 경쟁에서 패배한 패배자들로 재현된다. 무한 경쟁 속에서 원자화된 개인의 고독, 소외와 불안, 성공을 위한 자기계발과 자기소진은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성공을 위해서는 감내해야 하는 당연한 과정으로 재현된다. 이러한 재현들의 일반화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가치체계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지식이자 삶의 원리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모두 신자유주의의 원리를 따르는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벗어나는 다른 삶의 풍경도 존재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논리를 위반하는 모습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면서도, '재현되지 못하는 것'에 속한다. 존재하지만 재현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은, 이 시대의 재현의 원리가 가진 불완전성을 보여준다. 결국 불완전한 이 시대의 지배

적 담론인신자유주의에 의해 선택적으로 '재현되는 것'과 '재현되지 못하는 것'이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분류된 '재현되는 것'들이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준거틀을 구성하는 자료가 되고, 구성된 준거틀이 다시 우리의 의식 구성과 행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가 필연적 진리가 아닌 담론의 효과라는 것을 밝히고, '재현되지 못한 것'들을 재현하고 그것들이 가지는 의미를 진단하고 해석하는 작업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적 상상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신자유주 담론 밖의 것들을 재현한 목록들이 새로운 삶의 준거틀을 구성해 냄으로써, 신자유주의와는 다른 방식의 가치체계나 삶을 상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재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재현하여 드러내는 작업은 일종의 재현의 정치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신자유주의에 의해 담론 밖으로 밀려나 존재조차 보이지 않았던, 다른 논리가 작동하는 로컬 공동체를 논의의 장으로 불러내어 재현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갖는 의미는 우선 신자유주의 너머가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신자유주의 담론 밖의 존재를 통해 신자유주의가 필연적 진리가 아닌 담론 효과라는 것을 밝히고, 다른 삶의 방식의 제시를 통해 신자유주의 너머를 상상하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현의 정치가 지배적 담론에 대한 저항적 실천의 한 가지 방식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다음으로 신자유주의 밖의 '다른 삶'의 모습을 재현함으로써 '다른 것'들의 목록을 채워나가는 것은, '다른 삶'끼리의 연대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신자유주의 밖의 '다른 삶'들은 실존적 조건에 따라 각각 특정한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 동일하지 않은 삶의 개별성은 연대의 불가능성을 상상하게 한다. 하지만 개별적 삶들이 지닌 다층적 특성과 실존적 조건의 변화 가능성은 무수한 의미의 그물망을 통해 연대의 자리를 마련한다. 밀양송전탑 반대주민들과 세월호 가족의 만남은 이러

한 예라고 할 수 있다.[7] 서로 다른 실존적 조건 때문에 연대의 불가능성이 상상되지만 의미의 그물망을 통해 서로 간의 연대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는 재현을 통한 상호 인지의 과정이 있었고, 두 집단이 가진 다층적 특성 가운데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생성된 공통의식이 자리함으로써 서로의 연대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것이 은폐된 '다른 삶'들을 드러내어 재현하는 작업, 즉 재현의 정치가 의미를 갖는 이유이다.

대안적 삶의 모습들을 끌어올려 재현하고, 작업의 결과들이 재현목록을 채워감으로써 연대와 변화 가능성의 자리를 만들기 때문이다. '드러나지 못하는 것'들을 재현해냄으로써 일차적으로 서로의 존재가 확인되고, 서로 다른 지점에서 출발하지만 위계화와 범주화를 넘어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적 삶이라는 공유의식에 기댄 연대의 가능성이 열림으로써 변화를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두 개의 '경쟁'과 재현

이 장에서는 상인들 사이의 경쟁을 중심으로 매체를 통해 신자유주의 담론을 재현하고 있는 사례와 재현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 경쟁의 모습을 살펴보고,[8] 각 사례에서 경쟁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의미화 되고

---

7) 밀양과 청도의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15일 전국의 고통받는 사람들을 2박3일간 찾아가는 "72시간 송년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략…) "72시간 송년회는 밀양과 청도의 오랜 싸움에 연대해 주었던 많은 노동자, 시민들에 대한 '할매・할배'들의 답례 인사"라고 전했다. 주민들은 16일엔 정리해고 후 장기 농성이 벌어지고 있는 충북 영동의 유성기업 공장, 과천 코오롱 본사 앞 단식농성장,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을 찾고, 경기 안산의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서울 광화문에 있는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에서 용산참사 유가족, 기륭전자 노동자 등과 함께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합동 송년회'를 연다. 『경향신문』, 2014.12.1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152304195&code=940100 (검색일 : 2015.5.20).

8) 두 경우 모두 현실세계에서의 실천으로 어느 것도 담론적 논의에서와 같은 순수한 신자유주의적 모습이나 대안적 가치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사례가

있는지를 사용된 단어들을 통해 밝힌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 차이가 재현의 원리인 담론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특별히 '경쟁'의 개념에 주목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이론가인 프리드먼이 작은 정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주된 기능을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사적 계약을 실현하며 경쟁적 시장을 육성하는 것[9]이라고 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경쟁'이 신자유주의의 중요한 개념이라는 점과 상인들은 그 경쟁의 극단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경쟁의 모습을 첨예하게 드러내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1. 신자유주의적 경쟁의 재현

신자유주의 담론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산된다. 그중에서도 언론은 신자유주의 담론을 신속하고도 광범위하게 확산시켜 왔다. 대표적으로 주요 신문에서 기업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법인세 감소, 복지 축소, 작은 정부론 등의 신자유주의를 적극 찬양하는 글들을 실음으로써 신자유주의를 적극 옹호해 온 것이 이러한 예이다. 신자유주의 담론으로 무장한 언론이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신자유주의가 관철되고 있는 우리 사회를 일상적으로 해석하고 여론화하는 역할을 해 온 것이다. 손석춘은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면서 신자유주의의 살벌한 경쟁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를 벗어나 새로운 사회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언론이라고 지적한다.[10] 이러한 지적을 달리 표현하면 언론을 통해 생산된 신자유주의의

극명하게 차이 나는 경쟁의 모습을 보인다는 점, 그리고 이 논문이 신자유주의와는 다른 경쟁에 대한 재현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초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논의를 단순화시켰음을 밝힌다.

9) 권수현,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과 문화 논리」, 『친밀한 적』 (이후, 2010), 21. 재인용,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 (2007), 24.

10) 손석춘, 「신자유주의에 대한 언론과 비판 언론학 비판」,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45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09), 71~73.

재현목록들이 대안적인 담론의 가능성을 은폐함으로써 진실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된다.

언론이 신자유주의가 관철되고 있는 우리 사회를 일상적으로 해석하고 여론화해 가는 방식은 다양하다. 그 가운데에는 고발의 형식을 취한 것도 있는데 고발이라는 표면적 형식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일상화로 해석되어, 오히려 신자유주의의 확산을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아래에서는 언론이 재현하여 일상화하는 신자유주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신문에서 재현하고 있는 상인들의 '경쟁'[11]의 예를 통해 그 '경쟁'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확인하고, 이러한 재현이 신자유주의 담론 밖에 대한 상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1) 마포구는 지난주에도 상수동에서 '불법 테라스' 3건을 적발했다. 이번 겨울 들어 월평균 15~20건씩 '고자질' 성격의 테라스 민원이 구청에 접수됐다.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커피 한 잔 즐기는 노천카페나 운치 있게 밥을 먹는 테라스를 구청에 신고한 '누군가'는 바로 인근 경쟁업소다. 상인들은 야외 테라스가 경쟁 상점 간의 '블랙(해코지) 행위'에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하철 상수역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씨(32)는 "장사가 잘되는 다른 가게에 소위 '찌르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 "하루 매출이 수백만 원 줄어드는 셈"이라고 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신고 받고 단속 나가보면 같은 건물의 2층, 3층 매장에서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국민일보』, 2015.02.25).

2) 경기지역 곳곳에서 자영업자들이 이른바 제살깎아먹기식 '치킨게임'(수익성을 고려하지 않는 출혈경쟁)을 벌이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저가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늘면서 자영업자들이 앞다퉈 가격을 낮추며 출혈식 경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11) 여기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여, 상인(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경쟁'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수원시 조원동 S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모씨(56・여)는 지난달 가게 바로 맞은 편에 '초저가형 치킨집'이 들어서면서 매출이 반 토막 나 버렸다. …… 이에 김씨는 지난달부터 튀김옷을 입히지 않은 옛날식 통닭을 새로 도입해 1마리 6천원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고객 상당수가 가격에 상당히 민감한 것 같다"며 "20여 년간 튀김옷을 입힌 프라이드치킨만을 고집해 왔지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경기일보』, 2014.10.28).

위의 기사들은 우리 사회의 경쟁의 단면을 보여준다. 1),2)에서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인근 상점이나 동종업종의 상점들이다. 일반적으로 '인근'이나 '동종'이라는 개념은 관계적 측면에서 '유대'라는 개념과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개념이 경쟁의 장으로 옮겨진다 하더라도 '경쟁'과 함께 '유대'라는 측면이 부분적으로 자리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1)과 2)에서 재현된 경쟁의 장에서는 '유대'의 개념은 완전히 삭제되고 철저히 '경쟁'만 남아있는 것으로 재현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에 재현된 경쟁논리의 극단에는 '너'는 없고 '나만' 존재한다. 이때 '나'는 경쟁에 이기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 경쟁업체를 '고발'하고 '제살깎아먹기식', '치킨게임', '출혈식 경쟁'을 감행하는 극대화된 경쟁논리로 무장한 존재다. 이에 대해 '너'는 '나'에 의해 고발당하고, '나' 때문에 가격을 내려야하고 상품제조방식마저 바꿔야 하는 존재이다. '너'는 '경쟁에서 나의 성공을 가로막거나 없어져도 좋은 존재'로 의미화 된다. 결국 '너'는 '나'와의 인간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기보다는 '나'의 성공과 관련하여 의미를 부여받는 물화된 존재인 '그것'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이 '그것'이라는 비인격적 존재로 나타나게 되며 결국 나의 수단으로 이용될 뿐이다.[12]

12) 마르틴 부버, 표재명 옮김, 『나와 너』 (문예출판사, 1980), 10～12.

‘나’와 ‘너’의 관계가 이렇게 설정된 경쟁논리 속에 ‘우리’라는 개념은 없다. ‘같이, 함께’ 같은 단어와의 배치를 상상할 수 없는, ‘고발’, ‘치킨게임’, ‘출혈식 경쟁’ 같은 단어들과의 배치는 ‘우리’라는 개념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경쟁에서는 오로지 개인으로서 ‘나’의 성공과 실패만이 중요한 의미가 되며, ‘같이 잘 사는’, ‘유대’, ‘공생’은 자리할 수 없다. 철저히 원자화된 개인들이 경쟁원리를 증식시키며 각자의 성공을 위해 질주할 뿐이다. 이렇게 신문 기사에서는 신자유주의화된 주체의 모습이 일상적으로 재현되고 있다. 또 ‘블랙(해코지) 행위’, ‘제살깎아먹기식’, ‘치킨게임’, ‘출혈식 경쟁’ 같은 극단적인 단어들을 통해, 우리 사회가 치열한 생존경쟁 전략이 난무하고 있는 곳임을 재현한다. 특히 ‘제살깎아먹기식’, ‘출혈식’ 같은 자기파멸적 행위까지도 불사하는 극단적인 양상은, 시장이 화폐를 매개로 하여 몰인격적인 교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공동체적 연대가 부재[13]하는 곳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재현들로 채워진 목록들이 반복적이고 일상적으로 주어짐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은 이에 대한 반성적 사고보다는, 이것을 사고와 행위의 준거틀로 활용함으로써 신자유주의에 포섭된다. 주어지는 재현목록 안에서 개인들은 신자유주의적인 경쟁 논리를 철저히 내면화한 주체가 되어, 성공을 위해서는 자신까지 파멸시킬 수 있는 치열한 생존전략을 구사하며 신자유주의가 열어놓은 불안정한 삶의 길로 들어간다. 신자유주의 담론 밖을 상상할 수 없는 개인들에게는 신자유주의의 철저한 내면화만이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자유주의 담론은 재현을 통해 담론 밖을 통제하며 효과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을 통치하고 있다.

13) 김현미, 「신자유주의적 권위주의 국가와 생활정치」, 『창작과 비평』 145집 (창작과비평사, 2009), 110.

3.2. '다른' 경쟁의 재현

사회의 지배적 담론이 사고와 행위의 준거틀이 된다 하더라도, 모든 삶들이 이러한 준거틀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신자유주의가 사회를 관통하는 지배적 담론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신자유주의 담론을 재현하는 매체들에 의해 재현에서 배제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는 '다른 삶'들이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삶이라고 해서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쟁은 신자유주의 담론 속에서의 '경쟁'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경쟁'이라는 동일한 기호 형식을 가졌지만 그 의미가 다른 '경쟁'이다. 페쇠는 단어의 의미가 고정된 동일한 것이 아니며 단어들이 담론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14]

이 절에서는 앞 절에서 재현된 '경쟁'과는 다른 경쟁의 모습을 보이는, 지금까지 재현되지 못했던 사례를 드러내어 재현함으로써 '지금, 여기' 존재하는 '다른 것'의 상상을 시도하고자 한다.

3.2.1. 암남공원의 해녀공동체

부산시 서구 암남공원 내에는 사람들에게 '암남공원 해녀촌' 또는 '해녀공동체'[15]로 알려진 해산물 판매촌(텐트촌)이 자리한다. 이 해녀촌은 암남공원 해변 주차장 옆에 자리하는데, 29개의 상점에서 해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이곳이 해녀촌으로 불리게 된 배경에는 텐트촌이 생기기 전, 이곳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해 판매하던 해녀들이 공원조성사업 과정에서 여기에 자리를 배정 받아 장사를 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16]

---

14) 다이안 맥도넬, 임상훈 옮김, 『담론이란 무엇인가』 (한울, 1992), 73.

15) 이들은 삶의 터전으로부터 추방당할 위기를 경험하면서 하나의 집단이라는 공통의 의식을 형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996년 해변조합을 창설하여 조합원으로 전원 가입하고 일부는 자녀 세대까지 승계하여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합 구성원들이 조합의 규칙을 지키며 삶의 터전을 바탕으로 한 집단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넓은 의미의 공동체로 볼 수 있다. 해변조합은 1999년 다시 해녀조합으로 이름을 바꾼다.

16) 당시 29개의 가게 중 1개의 가게는 여기에서 김밥과 커피를 팔던 사람이 입주했다. 그리

지금의 암남동 해녀촌이 자리한 이 장소를 기반으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생활했던 최조의 집단은 해녀들이었다. 이 근처에서 해녀들이 물질을 시작한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일제강점기부터 이곳에서 해산물을 채취하여 생활을 영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들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은 알 수 없고, 심층면담을 통해 이곳 해녀들의 활동이 확인된 것은 한국전쟁 때부터이다. 한국전쟁 당시 이곳 해녀들은 채취한 해산물을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판매했다.[17]

그러던 중 1976년 이들이 수십 년 동안 해산물을 채취해온 공간이 매립되면서 이곳에서 판매행위를 하던 구성원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이곳에서 해녀들 외에 외부인들이 함께 해산물 판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이곳 해녀나 다른 구역 해녀들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판매를 했다. 해녀들과 해녀가 아닌 사람들이 섞이게 된 것이다. 판매 장소가 된 동일 공간에서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을 매개로 외부인들은 해녀들의 집단에 섞이게 되었다.[18] 그 후 다시 한 번 구성원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 1997년 이후 이곳이 현재와 같이 정비되고 안정을 찾아가게 되면서 나이든 해녀세대들이 물러나고 일부 자녀 세대들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공동체의 다시 구성원에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이다. 그 결과 현재 이 공동체의 구성원은 40대부터 80대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젊은 세대는 대체로 40대가 중심인데, 다른 일을 하다가 20대 후반에 어머니 일을 도우려고 이곳에 들어와 일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밖에서 횟집을 하다가 부모님과 함께 일을 하려고 이리로 들어온 사람도 있다.

고 28개 가게 중에도 몇 가게는 해녀일은 하지 않고 해녀의 물건을 받아서 팔던 사람이 입주했다.

17) 임○○.

18) 1980년대 이후 노점상 단속이 심해지면서 같이 장사를 하던 외부인들 오륙 명이 해녀들과 함께 관에 대응하게 되는데, 이것이 해녀들과 이들 사이의 유대감을 형성시키고 결속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3.2.2. 공동체의 운영방식과 '경쟁'

이 해녀공동체에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자리 바꾸기', '마수 시켜주기', '손님 보내주기', '요리법 전수하기', '공동영업' 같은 특이한 운영방식이 존재한다. 이 운영방식들은 앞 절에서 신문 기사를 통해 재현된 경쟁과는 다른 특징들을 보인다. 각 운영방식을 개략적으로 살피고 이를 통해 이들 운영방식에 존재하는 경쟁의 의미를 살펴보겠다.

3.2.2.1. 자리 바꾸기

'자리 바꾸기'는 1년에 한 번씩 추첨을 통해 영업하는 자리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자리 바꾸기는 삼각형 모양의 구조로 되어 있는 텐트촌의 구조와 관계가 있다. 텐트촌 상점들은 삼각형 구조의 각 변을 따라 자리하는데, 각 변이 면한 위치가 달라 그에 따라 상점이 면하는 위치도 달라진다. 한 쪽은 바다 쪽으로 면해 있고 다른 한쪽은 산 쪽으로, 다른 한 쪽은 주차장 쪽으로 면해 있다. 그런데 상점이 어느 쪽에 면해 있는가 하는 것은 수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바다 쪽 상점이 가장 장사가 잘 되고 그 다음이 주차장 쪽, 그리고 산 쪽의 상점이 가장 장사가 안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각 상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른 수익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고, 공간적 차이가 수익에 미치는 영향만을 말한 것이다.[19] 특히 여름에는 수익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진다.

텐트촌이 만들어지고 처음 이주할 때, 해녀들은 뽑기를 통해 각자 장사할 자리를 배정 받았다. 얼마 동안 각자 고정된 자리에서 장사를 했더니, 바다 쪽은 수입을 많이 올렸지만 산 쪽은 공동회비를 내고 재료비 같은 경비를 제하고 나면 손해를 볼 정도로 수입에서 차이가 났다. 그래서 자리를 바꾸자는 의견이 나이든 해녀들과 조합임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20]

19) 이곳 상점들은 주로 해산물을 날것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다른 것을 판매하더라도 메뉴가 같아서, 이러한 차이가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정도로 보인다. 면담자들 또한 십여 년간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수익의 차이가 자리의 영향이라고 구술한다.

"시설 들어가는 돈도 똑 같이 내고 공동경비도 같이 내는데 누구는 벌고 누구는 못 벌고 하면 안 되잖아. 같이 살아야지"[21]라는 생각에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의논한 결과, 모두 찬성하여 1년에 한 번씩 장사하는 자리를 바꾸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그 결과 이곳에서는 매년 3월 상점 주인들이 모여 자리를 두고 추첨을 한다. 산 쪽 사람들은 바다 쪽 자리를 두고 추첨을 하고 바다 쪽 자리 사람들은 주차장 쪽으로, 주차장 쪽 사람들은 산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추첨을 한다. 이렇게 하면 3년 만에 바다 쪽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22] 이러한 방식이 10년 넘게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 "추첨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가 아예 없어요. 그냥 다 공평하게 장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이 안에서는 너무 장사가 안 되거나 하면 그것도 그냥 볼 수가 없는 거 같아요"[23]에서 보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자리 추첨하기는 이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정한 규칙(해변조합의 규칙)에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되었다. 십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해녀공동체의 구성원도 변하여, 일부 자녀 세대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자녀세대가 들어오면서 공동체 구성원에 변화가 생기게 되자 공동체 규칙 중에도 잘 지켜지는 것과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은 변화가 생기기도 했지만, 이 규칙은 아직까지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지켜지고 있다.[24]

---

20) 자리는 돌아가면서 추첨해. 바다 쪽은 여름에 시원하다고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산 쪽으로는 덥다고 안 들어가.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추첨을 해. 그렇게 안 하면 버는 사람들은 벌고 위쪽은 못 벌고 해서 안 돼. 그래서 우리 고참들이 의견을 내서 의논해 가지고 추첨을 하기로 했지. 임○○, 서○○.

21) 임○○.

22) 이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는 안미정의 논문에서는 이러한 추첨이 2년마다 한 번씩 돌아온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안미정, 「부산시 해녀 커뮤니티의 존재양상」, 『역사와 경계』 89호 (부산경남사학회, 2013), 233~234.

23) 희자매.

24) 임○○, 양○○1, 양○○2, 희자매, 서○○.

3.2.2.2. 마수시켜 주기

이 공동체가 상점을 운영하면서 보여주는 또 다른 특이한 모습은 '마수시켜 주기'이다. '마수하다'라는 것은 하루 중 처음으로 물건을 파는 것을 말한다.[25] '마수시켜 주기'란 마수를 못한 사람이 마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곳에서는 손님을 마수를 못한 상점으로 보내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마수시켜 주기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날은 장사가 안 되는 날도 있잖아요. 하루 종일 있어도 손님을 하나도 못 받는 때가 있거든요. 인자 그라믄 주위에서 손님을 글로 보내죠. 그래 가지고 마수를 시켜주는데, 이건 어머니 때부터 그렇게 하던 거예요. 장사를 하면 경쟁도 하지만 그런 거는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26] 그런데 이 마수시켜 주기 전통은 나이든 해녀 세대에서부터 내려오는 전통으로, 자녀 세대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켜지고 있다.

3.2.2.3. 손님 보내주기

이 공동체에는 마수시켜 주기와 비슷한 '손님 보내주기'라는 것이 있다. '손님 보내주기'란 손님이 음식을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손님을 다른 상점으로 보내주는 방식이다. 이것은 텐트촌 상점의 내부구조가 입식과 좌식으로 구분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바다 쪽의 상점들은 입식이지만 산 쪽의 상점들은 좌식이 많다. 손님의 연령이나 취향에 따라 입식과 좌식의 선호도에서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이를 동반한 경우에는 좌식이 편리하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아이를 동반한 손님이 오면 자기 집으로 온 손님이라도 좌식으로 된 상점으로 손님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 "젊은 사람들은 테이블을 좋아하는데, 아가 있는 사람들은 또 방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물어 보고 방 있는 데로 보내기도 해요."[27] 손님 보내주기는 상

2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n.go.kr/ (검색일 : 2015.12.10).
26) 희자매.
27) 임○○.

점 주인들이 손님의 편의를 위해 자신들의 이익을 일정 부분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행위이다.

3.2.2.4. 요리법 전수하기

이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이한 모습은 새로 개발한 음식의 요리법을 다른 상점에도 전수하여 요리법을 서로 공유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동체 구성원의 세대교체와도 관련이 있는데, 젊은 세대들의 유입으로 생긴 변화 가운데 하나가 음식메뉴의 변화이다. 과거 이곳에서는 해산물만을 손질해서 판매했었는데 젊은 세대들의 유입으로 장어요리나 치즈를 이용한 요리 같은 새로운 음식 메뉴들이 개발되었다. 인터넷 같은 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젊은 세대들이 이것을 홍보하자, 인터넷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이 새로운 음식을 찾게 되었다. 그러자 해산물만을 판매하던 나이든 세대들의 수입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나이든 세대들에게 새로 개발한 음식의 조리법을 전수해 주게 된 것이다.[28] 요리법 전수하기는 주로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서 나이든 세대에게 알려주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옛날에는 물질한 것만 팔았어요. 장사가 정체기가 있었지요. 그러다가 젊은 사람들이 조개구이, 장어구이 같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서 메뉴를 다양하게 하고 또 손님들 요구도 즉각 반영하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의논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다가 장사가 다시 활성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장사가 안 되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배워서 새로운 메뉴를 만들고 하니까 그래서 같이 하는 거죠."[29] 지금 해녀촌 각 상점들의 음식 메뉴가 거의 비슷한

28) 젊은 사람들은 장사하는 데 인터넷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자기 집 메뉴를 인터넷에 올리면 사람들이 보고 오잖아요. 와서 보고 이집은 왜 그걸 안 주냐 하게 되면, 할머니들도 우리한테 그거 어떻게 하느냐고 묻고 하니까 그러면 할머니들한테 가르쳐드리죠. 그래서 치즈 넣어서 조개구이 하는 거, 장어구이 하는 거 이런 거 가르쳐주고 배우고 하죠. 희자매.

29) 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요리법 전수하기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3.2.2.5. 공동영업

그 외에도 이곳에는 특이하게도 두 상점이 공동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숙이네'와 '총각집', '희자매'와 '제주해녀'의 경우, 두 상점이 모여서 한 집처럼 공동영업을 하고 있다. 공동영업은 두 상점이 재료비를 같이 내고 시설과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영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다. '숙이네'와 '총각집'은 젊은 세대가 주축이 되어서 공동영업을 하는 경우이다. "공간을 같이 쓰기도 하고 일하는 것도 같이 하는 게 편해서 해요. 그리고 친구거든요."[30] 공동영업을 하는 이유가 두 가게를 연결하여 공동영업을 함으로써 편하게 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점 주인인 두 사람이 해녀의 자녀 세대로서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희자매'와 '제주해녀'는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가 공동영업을 한다. "재료 장만하고 일도 같이 하고 장소도 같이 쓰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익을 나누어 갖죠. 그게 좀 더 편한 거 같아요. 옛날부터 해녀들은 '가부시끼'(협동)[31]하는 전통이 있었대요. 공동으로 잡아와서 저울에 달아 공동망에 넣고 장사하고 물건 값 빼고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던 전통이 있었다는데, 비슷하게 하는 거에요."[32] 이들은 공동영업을 하는 이유가 재료 장만이나 일을 같이 하는 것이 편하고 공간을 같이 쓸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영업 방식은 옛날 해녀들의 전통에서 착안한 것이라고 한다.

3.2.2.6. 호객행위

이 공동체의 규칙에는 호객행위에 관한 조항이 있다. 조합규칙에는 아래 사항을 어길 시 1차 경고한다는 문구와 함께 "호객행위(기본 배당된 자리

30) 양○○2.
31) 정확한 단어인지 확인이 안 되지만 본인들은 이것을 협동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32) 희자매.

해물진열대 안에서만 호객행위를 해야된다)(주의)"라고 명문화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해녀촌 중앙 공동공간에 "이곳에서는 호객행위를 하지 않습니다"라는 팻말을 세워두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그 팻말은 없어지고, 단지 한 상점만이 간판 옆에 "저희 가게는 호객행위를 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새긴 플라스틱판을 걸어두고 있다. 실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같이 운영하는 이 상점만 호객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상점들에서는 호객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현 조합장은 지금은 대부분 호객행위를 하는데 그래도 일정한 규칙 안에서는 이루어진다고 한다.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면서 호객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규칙에 변화가 생겼는데, 하지 말라는 주의를 주어도 행동 변화로는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한다.[33] 이에 대해 젊은 세대들은 조합에서는 호객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데 쉽지 않으며, 다른 곳에 비하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호객행위가 심하지 않고 호객행위도 나름대로 규칙을 지킨다고 한다.[34] 호객행위와 관련한 이러한 변화는 과거에 비해 이 공동체 내에도 경쟁의식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젊은 세대가 가진 경쟁의식이 그대로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이들의 의식 또한 변화를 겪는다. 예를 들어 밖에서 횟집을 운영하다가 이곳으로 온 젊은 세대가, 밖에서 하던 경쟁 방식을 이곳에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호객행위의 수위를 조절하거나 공동경영을 하는 것도 하나의 예이다.[35]

이들이 스스로를 하나의 집단 또는 공동체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들이 엮여 있는 장은 경쟁의 논리가 강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역시 앞의 신문 기사에 재현된

33) 호객행위를 해야 장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딸도 내가 호객행위 하지 말라고 하면 먼 산만 쳐다보는데 뭘. 양○○1.
34) 양○○2.
35) '숙이네'의 젊은 주인은 밖에서 횟집을 운영했었다고 하는데, '숙이네'와 '총각집'은 공동경영을 하고 있다.

'인근'과 '동종업종'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경쟁을 벌여왔던 상점들과 마찬가지로, '인근'과 '동종업종'이라는 점을 포함하고 있어 경쟁의 양상도 유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이들도 장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금지되어 있는 '호객행위'를 하는 등 각 상점 간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위의 '자리 바꾸기', '마수시켜 주기', '손님 보내주기', '요리법 전수하기', '공동영업' 같은 운영방식이 존재하고 있어, 해녀공동체에서 나타나는 경쟁의 모습이 앞의 신문 기사에서 재현된 경쟁의 모습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의 독특한 운영방식에는 어떤 '경쟁'의 의미가 담겨 있을까? 경쟁의 장에서 작동하는 '자리 바꾸기', '마수시켜 주기', '손님 보내주기', '요리법 전수하기' 같은 방식은, 기본적으로 '나'와 함께 경쟁의 상대인 '너'가 고려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물론 이곳에서도 '너'는 '나'의 경쟁 대상이다. 하지만 이때 '너'는 나의 경쟁자나 나의 성공을 가로막는 배타적 존재와 같은 한 가지 방향으로만 의미화 되지 않는다. 경쟁은 하지만 "같이 살아야지"와 "이 안에서는 너무 장사가 안 되거나 하면 그것도 그냥 볼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우리가 장사 때문에 경쟁을 해도 서로가 완전히 남들처럼 경쟁하듯이 안 되는 …… 완전히 안 되는 건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요"[36]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너'의 완전한 실패를 막기 위해 자리 바꾸기도 하고 마수를 시켜주기도 하고, 손님을 보내주기도 하고 요리법도 전수해 주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쟁체재 속에서 '너'는 경쟁자이기는 하지만 '남'도 아니고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하면 안 되는 존재이며, 같이 살아야 되는 존재로 의미화 된다. 이러한 '너'의 의미는, 앞의 신문 기사에서 '경쟁에서 나의 성공을 가로막거나 없어져도 좋은 존재'로 의미화 된 '너', 공동운명체로서의 '너'가 아닌 물화된 존재인 '그것'으로 의미화된 것과 다르다. 단어들이 담론

36) 희자매.

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페쇠의 논리에 따르면, 두 상황에서 '너'에 대한 의미가 다르다는 것은 두 상황을 지배하는 가치체계나 작동원리, 즉 담론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해녀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경쟁에서 작동하는 원리는, 앞에서 신문이 재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담론과는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너'의 의미 차이는 또 다른 개념의 차이를 생산한다. 해녀공동체 내에서의 경쟁에서처럼 '너'가 '경쟁자이지만 완전히 패배하면 안 되고 같이 살아야 되는 존재'로서 의미화 되면, '나'와 '너'는 더 이상 배타적인 관계로만 파악될 수 없다. '나'와 '너'가 '같이'라는 단어와 함께 배치되는 순간, 경쟁의 장에는 '우리'라는 새로운 개념이 자리잡게 되기 때문이다. 1인칭 복수형인 '우리'는 '너'가 '나'와 하나의 범주로 묶여질 수 있을 때 성립 가능한 개념이다. "우리가 장사 때문에 경쟁을 해도"에서 보듯이 '너'에 대한 의미의 차이는 신자유주의 담론에서 삭제되었던 '우리'라는 개념의 복권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해녀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자리하는 '우리'라는 개념 혹은 의식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행위가, '자리바꾸기'나 '마수시켜주기', '요리법 전수하기', '공동영업' 같은 운영 방식이다. 신자유주의 담론의 재현에서 삭제되었던 '우리'라는 개념이 해녀공동체의 경쟁 원리에서 복권되는 점 역시, 이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작동하는 경쟁의 원리가 신자유주의 담론과는 다른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쟁의 장이지만 같이 살아야 하는 '너',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을 통해 '나'와 같은 범주로 묶일 수 있는 '너'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완전한 실패는 안중에도 없는 극단적인 경쟁이 자리할 수 없다. 그곳에는 '같이 살아야'하는 즉, 공생이 자리하는 경쟁의 논리가 작동한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은 원자화된 개인주의로 치닫는 극단적인 경쟁보다는 항상 공생이라는 꼭짓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쟁이다. 이런 점에서 해녀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특이한 운영방식이 작동할 수 있는 기저에는, 공통적으로 '같이' 또는 '공생'의 의미가 자리한다고 할 수 있다. 나의

이익보다는 손님의 편의에 대한 배려나 '같이'를 통한 너에 대한 배려에서 나타나듯이 해녀공동체 내부의 경쟁의 장에서는, 자본의 논리를 대변하는 경제적 효용성이 항상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곳에는 신자유주의의 중요한 가치인 경제적 효용성을 밀어내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공생'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암남공원 해녀공동체는 앞의 신문에서 재현된 경쟁과는 다른 경쟁의 양상을 보여준다. 이 경쟁의 장에서 등장하는 '너'는 신자유주의의 경쟁 논리가 작동하는 장에서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통해 행복과 권리에 도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누락시켰던 '우리'라든가 '공생'의 개념이 복권된다. 그리고 '우리'와 '공생'의 개념은 극대화된 개인주의나 경쟁논리가 유보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처럼 경쟁이라는 구도 속에서 등장하는 같은 형태의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를 나타내거나 다른 단어들과 함께 배치되는 것, 그리고 각 장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다르다는 것은, 이들 두 경쟁의 장이 각각 다른 담론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결론—암남동 해녀공동체의 재현과 대안적 상상

신자유주의적 담론은 지배적 담론을 재현하는 매체들을 동원하여 사회 구성원의 삶에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담론 밖을 통제하고 배제하는 전략을 사용하면서, 적절하게 자신의 위치를 강화해 왔다. 사회 구성원들은 매체를 통해 상시적으로 재현되는 삶의 풍경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것, 다른 삶에 대한 상상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개인들은, 무한 경쟁 속에서 승자와 패자의 구분짓기에 집착하고 끝없는 자기계발에 피로감을 느끼고 유동적이

고 불안정한 삶에 힘들어 하면서도 '우리'나 '의지함', '공생'을 생각할 수 없는 원자화된 개인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지금, 여기' 존재하지만 재현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삶의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암남동 해녀공동체는 이러한 예의 하나이다. 경쟁을 일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해녀공동체가 보여주는 경쟁의 모습은 신자유주의적 경쟁과는 다른 삶의 풍경을 만들어 낸다. 신자유주의의 경쟁논리에 포섭된 원자화된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했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부담을, 이 공동체에서는 '공생'의 의미가 깔린 운영 방식을 통해 줄이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운영방식은 개인의 실패에 대한 일종의 안전망으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방적인 성공을 견제하는 데에도 기여함으로써 실패와 성공의 양극화라는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줄이는 역할도 한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극대화된 경쟁의식의 가동과 끊임없는 자기계발의 피로감으로부터 탈출할 출구를 제공한다. 이 공동체가 보여주는 공생 의식이 반영된 다양한 실천들은 신자유주의의 경쟁담론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은 모습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자본과 권력을 등에 업고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문화를 점령하고 개인의 행동원리로까지 내면화된 신자유주의의 작동원리는, 이 공동체를 전면적으로 투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해녀공동체에서 작동하고 있는 경쟁논리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경쟁논리 너머를 상상하게 하는 것들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적 상상이 자리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과 실천이 전개되는 로컬에는, 신자유주의가 투과하지 못한 풍경들이 존재한다. 이런 풍경 속의 인간들은 원자화된 개인으로 떠돌며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느슨하지만 서로의 삶이 연계되어 있다는 의식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간다. 이들에게는 '나'와 '너'의 관계가 교환가치로 치환된 '나-그것'의 물화된 관계가 아닌, 인간적 관계로서의 '나-너'의 관계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담론이 지배하는 지금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삶의 풍경들이 은폐되어 재현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지만 은폐됨으로써 재현되지 못한 다른 삶의 풍경들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태도를 결정하는 인식틀로 기능할 수 없었던 것들이다. 이것이 신자유주의의 대안적 상상에서 재현의 정치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이다. 존재하지만 재현되지 못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소통되지 못했던, 다른 삶의 모습들을 재현해 내는 것은 지배적 담론에 균열을 가하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게 된다. 따라서 이렇게 편재되어 있지만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수많은 대안적 풍경들을 재현하여 새로운 인식틀이 될 수 있는 재현목록을 구성해 가는 것은, 개인의 변화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층위의 장소들로 확장될 수 있는 대안적 상상의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암남동 해녀공동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공동체가 보여주는 경쟁의 독특성은, 이 공동체의 형성과 변화 과정, 구성원들의 경험 등 다양한 요인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논의를 함께 다루는 것이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하겠지만, 지면의 제한과 필자의 한계로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 참고문헌 |

권수현,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과 문화 논리」, 『친밀한 적』 (이후, 2010).

김상률, 「탈식민 시대의 재현의 정치－미국문화와 인종적 타자」, 『탈근대의 담론과 권력 비판』 (한양대 출판부, 2002).

김현미, 「신자유주의적 권위주의 국가와 생활정치」, 『창작과 비평』 145집 (창작과비평사, 2009).

김현미 · 권수현, 「포스트신자유주의를 상상하며」, 『친밀한 적』 (이후, 2010).

손석춘, 「신자유주의에 대한 언론과 비판 언론학 비판」,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45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09).

안미정, 「부산시 해녀 커뮤니티의 존재양상」, 『역사와 경계』 89권 (부산경남사학회, 2013).

JK 깁슨-그레엄, 엄은희 · 이현재 외 옮김, 『그따위 자본주의는 벌써 끝났다』 (알트, 2013).

다이안 맥도넬, 임상훈 옮김, 『담론이란 무엇인가』 (한울, 1992).

마르틴 부버, 표재명 옮김, 『나와 너』 (문예출판사, 198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n.go.kr/(검색일 : 2015.12.10).

『경기일보』, 2014.10.28,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검색일 : 2015.05.10).

『경향신문』, 2014.12.1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152304195&code(검색일 : 2015.05.20).

『국민일보』, 2015.02.25,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971724&code (검색일 : 2015.05.10).

면담자

면담자 성명	나이	직업	면담일자	면담 장소
서○○	64세	전조합장(아내－해녀촌 상점 운영)	2015.5.26, 5.29, 6.2	커피숍
임○○	82세	해녀, 해녀촌 상점 운영	2015.5.8, 5.16, 5.26, 5.29	암남공원 해녀촌
양○○1	75세	현조합장	2015.5.26	암남공원 해녀촌
희자매	44세	해녀촌 상점 운영	2015.5.26, 5.29	암남공원 해녀촌
양○○2	42세	해녀촌 상점 운영	2015.5.26	암남공원 해녀촌

abstract

An Alternative Imagination to Neo-Liberalism and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With a focus on the Haenyeo community at Amnam Park

Cha, Yun-Jung(Pusan National University)
greencha@pusan.ac.kr

Imagining an alternative to neo-liberalism is to picture 'something different' to the operational principle and value system that we believe penetrates our society at the present time. 'Something different' may be a prediction regarding the possibilities of the future. However, they may be things we failed to realize, and hence things we failed to imagine as an alternative because they are not exposed in the world despite their presence 'here and now'. This paper attempted an alternative imagination by representing the hidden local community, which is functioning a logic that defies neo-liberalism. To do this, the paper first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presentation, representation list, and discourse. The study inquired into the importance of representation in the alternative imagination of neo-liberalism by examining how the meaning of representation and the production of knowledge is connected to discourses and power. Furthermore, an analysis on the 'competition discourse' of Korean society represented by newspaper articles confirmed the logic of new-liberalism to pursue economic usefulness based on impersonal relationships. Also, the study tried to find the image of 'something different' existing in the 'here and now', in the Haenyeo community of Amnamdong, although representation failed due to the dominant discourse. The concepts of 'us' and 'coexistence', deleted by the competition of neo-liberalism, were restored in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within the Haenyeo community, and a 'different competition' of logic based on human relationships was at work. Lastly. the representation of 'something different', which failed to be communicated be-

tween members of society, though existing, inflicts cracks upon the dominant discourse and is a practice that creates new meaning.

Key words : Neo-Liberalism, Representation, Discourse, Competition, Haenyeo Community

KCI

투고접수 : 2016.1.4
심사완료 : 2016.2.5
게재결정 : 2016.2.19